

##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

정인숙\*\*

국립특수교육원

김형일

나사렛대학교

박재국

부산대학교

### 《요약》

이 연구는 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간의 협력에 있어서 투입요인과 과정요인으로 분류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국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1,00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에 있어서 투입요인으로, 인적 자원의 협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련기관은 주로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 및 특수학급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감각장애학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정요인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한 교육내용에 따른 주된 활동은 '현장견학'과 현장실습이었고, 평가는 대부분 학교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의 효율성을 위한 요구사항은 외부 직업 관련기관과의 연계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기관 간 연계를 위한 바람직한 협력 방법에 관해서는 각 부처(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통합된 통합고용지원팀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주제어 :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육기관, 관련기관, 협력, 직업교육, 실태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6년도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의 졸업생 진로실태를 살펴보면, 특수학교

\* 이 논문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11-1340458-000080-01)

\*\* 제1저자, 교신저자(jinsuk60@mest.go.kr)

고등부 졸업생 2,169명 중에서 취업을 한 학생은 497명으로 약 20.4%에 불과하다. 또한,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938명(43.3%)이고, 진학처는 전공과 812명(진학자 중 86.5%), 전문대학 13명(진학자 중 1.38%), 대학교 83명(진학자 중 8.8%)이다. 취업과 진학이 안된 경우는 734명(약 33.8%)이다. 특수학급의 경우, 고등부 졸업생 940명 중 380명(52.6%)이 취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218명(23.2%)이며, 진학처는 전공과 72명(진학자 중 33%), 전문대학 102명(진학자 중 46.7%), 대학교 44명(진학자 중 20.0%)이다. 취업과 진학이 안된 경우는 342명으로 약 36.4%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러한 진로 실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장애인의 진학 및 취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취업을 되었다 하더라도 취업직종이 단순노무직이 많은 형편이고, 직장 유지기간이 정신지체의 경우 2년 이하가 61%를 차지하고 있어(정인숙, 2003)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형편이다. 또한 진학자 중에서도 전공과의 진학률이 높아서 전공과 이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취업률을 높이고 직장 유지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학교의 직업교육이 '선배치-후훈련' 모델로 적용되어야 하며, 학교현장에 직업개발자, 직업직무원, 사례관리자 등이 함께 투입되어 실제적인 직무분석과 직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관련기관간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1개 부처(재정경제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외 7개 부처)가 합동으로 2006년 9월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장애인 고용·직업재활사업 혁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5. 25 제정)에서는 "진로·직업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서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 훈련을 실시하고,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진로·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도록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직업재활사업 혁신방향'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는 진로·직업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구성해야 하는 관련기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기관간 협력 체제를 통해서 중·고등부 진로·직업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졸업 후 직업유지 기간을 높임으로써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간의 협력 실태를 파악

한 후, 이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문제

첫째,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에 있어서 투입요인으로 인적 자원의 협력,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련기관 및 협력정도에 관한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에 있어서 과정요인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한 교육내용, 평가, 바람직한 협력방법에 관한 요구 실태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의 협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주요대상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특수학교 중 유치부와 초등부 과정만을 설치한 학교를 제외하고, 전국의 중·고등부 설치 특수학교 129개교의 중학부·고등부·전공과 과정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과정별 각 1명씩 1개교 당 3명으로 387명, 특수학급은 전국의 중·고등부 특수학급 설치교 1204개교를 대상으로, 1개교당 1명으로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934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370명으로 총 1,304명,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180명을 대상으로 총 1,871명 이었다. 총 연구대상 중 응답자는 특수학교 교사 255명(65.9%), 특수학급교사 691명(53.0%), 특수교육지원센터 59명(32.8%)로 총 1,005명(50.6%)이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표 1> 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구분	조사대상	응답자	비고(조사대상 선정 기준)
특수학교 교사	387명	255명(65.9%)	· 중학부·고등부·전공과 과정별 각 1명씩 · 129개교 · 1개교당 : 3명
특수학급 교사	1,304명	691명(53.0%)	· 중학교 : 934명 · 고등학교 : 37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80명	59명(32.8%)	
총 계	1,871명	1,005명(50.6%)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강병호 외 2인(2003)의 설문지와 국내·외의 논문·저서·이론·세미나 자료집 및 조사보고서 등의 관련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각 학교(급) 및 기관별 현장 면담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하였다. 설문내용은 투입요인과 과정요인으로 영역을 구분하였고, 투입요인에는 기관의 인적자원, 관련기관의 활용률 및 협력정도, 과정요인에는 교육내용, 평가, 관련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바람직한 협력방법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사전검토는 특수교육기관별, 장애영역별 협력위원 20명의 메일을 통해 설문지의 검토를 의뢰 하였으며, 설문지 수정을 위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 받아 문항별로 재수정·보완하였다. 최종 문항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 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영역	하위문항	문항 수
투입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된 직업담당교사</li> <li>· 교직원외 관련기관의 참여자</li> <li>· 지역의 관련기관별 활용률</li> <li>· 지역의 관련기관별 협력정도</li> </ul>	4문항
과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육내용에 따른 주된 활동</li> <li>· 평가에서의 관련 기관의 참여도</li> <li>· 평가의 효율성을 위한 요구사항</li> <li>· 관련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li> <li>· 관련기관간 연계를 위한 바람직한 협력방법</li> </ul>	5문항

## 3. 조사절차

본 설문지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 간의 협력 실태를 파악한 후,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국립특수교육원의 통계자료 시스템에 등록한 후, 2007년 6월 전국의 특수학교와 중·고등부 특수학급 설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내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담당교사들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28일까지였으며, 응답 대상자 1,871명 중 조사에 응답한 대상은 1,005명으로 53.72%가 응답하였다.

## 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투입요인-과정요인을 기본틀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문항의 성격에 따라 과정별(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터)과 학교별(감각장애,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문항의 실태분석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투입요인(인적자원, 시설/설비)

##### 1) 주된 직업담당교사

인적 자원의 협력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직업교육 관련 주된 직업담당교사에 대한 학교별 복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진로·직업교육 관련 주된 직업담당교사 (학교별)  
(단위 : 명, %)

	감각장애 학교	정신지체· 정서장애학교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학 급 담 임 교 사	35(67.3)	90(73.8)	423(72.7)	14(29.2)	562(69.9)
진 로 및 직 업 교 사	40(76.9)	94(77.0)	70(12.0)	3(6.3)	207(25.7)
가 정 / 기 술 교 과 교 사	15(28.8)	19(15.6)	113(19.4)	3(6.3)	150(18.7)
상 담 교 사	6(11.5)	5(4.1)	68(11.7)	9(18.8)	88(10.9)
외부초빙강사	4(7.7)	4(3.3)	76(13.1)	3(6.3)	87(10.8)
기 타	5(9.6)	11(9.0)	96(16.5)	26(54.2)	138(17.2)
사 례 수(Base for %)	52	122	582	48	804

진로·직업교육 관련 주된 직업담당교사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학급담임교사가 맡는 경우는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73.8%), 중·고 특수학급(72.7%), 감각장애학교(67.3%), 특수교육지원센터(29.2%)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와 감각장애학교는 학급담임교사와 진로·직업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수학급의 경우는 거의 담임교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이외의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는 복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10.8%에 불과해 인적자원의 협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교직원 외 관련기관의 참여자

진로·직업교육에 관계된 교직원 외의 관련기관의 참여자에 대한 학교별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lt;표 4&gt; 진로·직업교육에 관계된 교직원 외의 참여자(학교별)

(단위 : 명, %)

참여자	감각장애 학교	정신지체· 정서장애학교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부 모(보호자)	38(49.4)	108(60.7)	344(49.8)	20(33.9)	510(50.7)
자 원 봉 사 자	20(26.0)	65(36.5)	108(15.6)	12(20.3)	205(20.4)
대 학 교 원	9(11.7)	8(4.5)	18(2.6)	7(11.9)	42(4.2)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관련 인사)	12(15.6)	57(32.0)	194(28.1)	16(27.1)	279(27.8)
기 업(업체) 관 계 자	24(31.2)	75(42.1)	88(12.7)	9(15.3)	196(19.5)
직 업 직 무 원(노동부 관련 인사)	11(14.3)	41(23.0)	55(8.0)	7(11.9)	114(11.3)
기 타	6(7.8)	9(5.1)	55(8.0)	1(1.7)	71(7.1)
사 례 수(Base for %)	77	178	691	59	1,005

진로·직업교육에 관계된 교직원 외의 참여자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의 경우 부모(보호자)(60.7%), 자원봉사자(36.5%), 사회복지사(32.0%), 기업관계자(42.1%), 직업직무원(23.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장애학교에서는 부모(보호자)(49.4%), 기업 관계자(31.2%), 자원봉사자(26%)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부모(보호자)(49.8%), 사회복지사(28.1%), 자원봉사자(15.6%)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부모(보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관련기관에서의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련기관(관련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진로·직업교육을 위하여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련기관에 대한 학교별 복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련기관은 주로 어떤 기관인지를 살펴보면,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의 경우 지역 장애인 복지관(64%),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 등(61.8%), 사업체(54.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장애학교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 등(59.7%), 지역 장애인 복지관(54.5%), 사업체(36.45%)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지역 장애인 복지관(51.2%), 지역교육청(31.3%), 특수교육지원센터(31.0%) 순으로 나타나, 특수학교와의 차이를 보였다. 특수학급은 특수학교와 달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의 이용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 교사의 차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연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사업체와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련기관(학교별)

(단위 : 명, %)

기 관	감각장애 학교	정신지체· 정서장애학교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지 방 자 치 단 체	14(18.2)	26(14.6)	64(9.3)	13(22.0)	117(11.6)
장 애 인 고 용 촉 진 공 단 사 무 소 등	46(59.7)	110(61.8)	134(19.4)	12(20.3)	302(30.0)
사 업 체	28(36.4)	97(54.5)	70(10.1)	7(11.9)	202(20.1)
지 역 장 애 인 복 지 관	42(54.5)	114(64.0)	354(51.2)	17(28.8)	527(52.4)
지 역 교 육 청	23(29.9)	48(27.0)	216(31.3)	24(40.7)	311(30.9)
특 수 교 육 지 원 센 터	9(11.7)	35(19.7)	214(31.0)	27(45.8)	285(28.4)
대 학(전문대 포함)	14(18.2)	19(10.7)	35(5.1)	8(13.6)	76(7.6)
기 타	4(5.2)	6(3.4)	55(8.0)	0(0)	65(6.5)
사 례 수(Base for %)	77(10)	178(10)	691(10)	59(10)	1,005(10)

#### 4) 지역의 관련기관별 협력정도

진로·직업교육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관련기관별 협력 정도를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로 인하여, 가로축에는 순회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기관의 역할로, 세로축은 학교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기관의 역할로 구분되었다.

진로·직업교육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관련기관별 협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그 정도를 ‘높다’, ‘보통’, ‘낮다’로 응답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기관의 협력 정도가 높은 기관은 지역장애인복지관(29.4%), 장애인고용촉진공단(19.2%), 사업체(1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지역장애인복지관(보건복지부관련)(32.5%)과 지역교육청(29.2%)의 협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장애학교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21.7%)와 사업체(17.9%)의 협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와 감각장애학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수학급의 경우 지역장애인복지관(31.1%)의 협력정도가 다른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정도는 대체적으로 지역장애인복지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장애학교는 지역장애인복지관보다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 등의 협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과 관련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6> 진로·직업교육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관련기관별 협력 정도(학교별)

(단위 : 명, %)

		감각장애 학교	정신지체· 정서장애학교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지방자치단체 (시청 구청)	높다	1(7.1)	2(7.7)	10(15.6)	1(7.7)	14(12.0)
	보통	10(71.4)	12(46.2)	33(51.6)	9(69.2)	64(54.7)
	낮다	3(21.4)	12(46.2)	21(32.8)	3(23.1)	39(33.3)
	전체	14(100.0)	26(100.0)	64(100.0)	13(100.0)	117(100.0)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 무소 등 (노동부 관련)	높다	10(21.7)	31(28.2)	16(11.9)	1(8.3)	58(19.2)
	보통	30(65.2)	52(47.3)	68(50.7)	9(75.0)	159(52.6)
	낮다	6(13.0)	27(24.5)	50(37.3)	2(16.7)	85(28.1)
	전체	46(100.0)	110(100.0)	134(100.0)	12(100.0)	302(100.0)
사업체	높다	5(17.9)	22(22.7)	9(12.9)	0(0)	36(17.8)
	보통	16(57.1)	47(48.5)	41(58.6)	6(85.7)	110(54.5)
	낮다	7(25.0)	28(28.9)	20(28.6)	1(14.3)	56(27.7)
	전체	28(100.0)	97(100.0)	70(100.0)	7(100.0)	202(100.0)
지역장애인복지관보육 자부 관련	높다	5(11.9)	37(32.5)	110(31.1)	3(17.6)	155(29.4)
	보통	24(57.1)	60(52.6)	183(51.7)	13(76.5)	280(53.1)
	낮다	13(31.0)	17(14.9)	61(17.2)	1(5.9)	92(17.5)
	전체	42(100.0)	114(100.0)	354(100.0)	17(100.0)	527(100.0)
지역교육청	높다	1(4.3)	14(29.2)	30(13.9)	3(12.5)	48(15.4)
	보통	11(47.8)	24(50.0)	119(55.1)	17(70.8)	171(55.0)
	낮다	11(47.8)	10(20.8)	67(31.0)	4(16.7)	92(29.6)
	전체	23(100.0)	48(100.0)	216(100.0)	24(100.0)	311(100.0)
특수교육 지원센터	높다	0(0)	8(22.9)	34(15.9)		48(16.8)
	보통	6(66.7)	20(57.1)	124(57.9)		168(58.9)
	낮다	3(33.3)	7(20.0)	56(26.2)		69(24.2)
	전체	9(100.0)	35(100.0)	214(100.0)		285(100.0)
대학 (전문대포함)	높다	1(7.1)	1(5.3)	3(8.6)	0(0)	5(6.6)
	보통	8(57.1)	13(68.4)	18(51.4)	6(75.0)	45(59.2)
	낮다	5(35.7)	5(26.3)	14(40.0)	2(25.0)	26(34.2)
	전체	14(100.0)	19(100.0)	35(100.0)	8(100.0)	76(100.0)
기타	높다	1(25.0)	3(50.0)	29(53.7)	-	33(51.6)
	보통	3(75.0)	3(50.0)	22(40.7)	-	28(43.8)
	낮다	0(0)	0(0)	3(5.6)	-	3(4.7)
	전체	4(100.0)	6(100.0)	54(100.0)	(100.0)	64(100.0)

## 2. 과정요인(교육내용, 교수방법, 평가)

### 1)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육내용에 따른 주된 활동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육내용에 따른 주된 활동에 대한 과정

별 복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육내용에 따른 주된 활동(과정별)  
(단위 : 명, %)

교육 내용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현장 견학	467(85.8)	282(79.9)	33(67.3)	48(81.4)	830(82.6)
현장 실습	352(64.7)	269(76.2)	45(91.8)	44(74.6)	710(70.6)
정보화 관련 접근 기술	329(60.5)	162(45.9)	7(14.3)	24(40.7)	522(51.9)
교과목 외 구체적 직업기술 지도	377(69.3)	256(72.5)	35(71.4)	40(67.8)	708(70.4)
추수 지도	34(6.3)	56(15.9)	18(36.7)	3(5.1)	111(11.0)
인터넷 활용	26(4.8)	16(4.5)	4(8.2)	9(15.3)	55(5.5)
기타	47(8.6)	19(5.4)	5(10.2)	11(18.6)	82(8.2)
사례수(Base for %)	544	353	49	59	1,005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육 내용에 따른 주된 활동을 과정별로 살펴보면 중학부는 현장견학(85.8%), 교과목 외 구체적 직업기술지도(69.3%) 순으로, 고등부는 현장견학(79.9%), 현장실습(76.2%)이 가장 많았다. 전공과는 현장실습(91.8%), 교과목 외 구체적 직업기술지도(71.4%)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현장견학(81.4%), 현장실습(7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현장견학과 현장실습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중학부부터 현장견학 보다는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직업기술 지도 등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의 협력체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평가에서의 관련 기관의 참여도

평가에서의 관련기관의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직업교육관련 평가 방법에 대해 과정별 복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진로·직업교육관련 평가의 방법(과정별)  
(단위 : 명, %)

평가 방법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학교 자체	480(88.2)	165(46.7)	20(40.8)	42(71.2)	707(70.3)
학교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동으로	21(3.9)	50(14.2)	13(26.5)	2(3.4)	86(8.6)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뢰하여	28(5.1)	86(24.4)	15(30.6)	9(15.3)	138(13.7)
장애인복지시설에 의뢰하여 등으로	36(6.6)	121(34.3)	16(32.7)	9(15.3)	182(18.1)
사례수(Base for %)	544	353	49	59	1,005

평가에서의 관련 기관의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직업교육관련 평가 방법을 과정별로 살펴보면 전 과정에 걸쳐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한다(중학부, 88.2%, 고등부 46.7%, 전공과 40.8%, 특수교육지원센터 71.2%)는 반응이 많았으나, 중학부보다는 고등부나 전공과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취업을 위해서는 특히 고등부나 전공과에서는 학교 자체 평가보다는 학교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공동으로, 혹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적성에 걸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직업유지 기간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가시화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 평가의 효율성을 위한 요구 사항

진로·직업교육관련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요구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과정별 복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진로·직업교육관련 평가 효율성을 위한 요구사항(과정별)

(단위 : 명, %)

요구 사항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적절한 평가도구의 구입	296(54.4)	142(40.2)	21(42.9)	20(33.9)	479(47.7)
외부 직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396(72.8)	280(79.3)	37(75.5)	45(76.3)	758(75.4)
실습 평가를 위한 시설 및 설비 확충	345(63.4)	208(58.9)	29(59.2)	41(69.5)	623(62.0)
평가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연수 기회 제공	254(46.7)	150(42.5)	22(44.9)	21(35.6)	447(44.5)
팁 평가를 위한 교사 및 부모 간의 협력체제 구축	170(31.3)	100(28.3)	16(32.7)	23(39.0)	309(30.7)
기업체의 협력과 지원	160(29.4)	175(49.6)	21(42.9)	24(40.7)	380(37.8)
기타	11(2.0)	5(1.4)	1(2.0)	3(5.1)	20(2.0)
사례수(Base for %)	544	353	49	59	1,005

진로·직업교육관련 평가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시급히 요구하고 싶은 사항을 과정별로 살펴보면, 모든 과정에서 외부 직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가장 요구되는 사항(중학부: 72.8%, 고등부 79.3%, 전공과 75.5%, 특수교육지원센터 76.3%)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실습 평가를 위한 시설 및 설비확충(중학부: 63.4%, 고등부: 58.9%, 전공과 59.2%, 특수교육지원센터 69.5%)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중학부는 적절한 평가도구의 구입(54.4%), 고등부는 기업체의 협력과 지원(49.6%), 전공과는 평가도구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 기회 제공(44.9%),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기업체의 협력과 지원(40.7%)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관련 평가의 효율성 높



대해 학교별 복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기관과 연계를 위한 협력방법(학교별)

(단위 : 명, %)

협력방법	감각장애 학교	정신지체· 정서장애학교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각 부처 통합고용지원팀 구성	46(59.7)	124(69.7)	428(61.9)	37(62.7)	635(63.2)
각 부처에 전담기구를 설치	10(13.0)	22(12.4)	144(20.8)	7(11.9)	183(18.2)
직업교육은 노동부로 이관	4(5.2)	5(2.8)	19(2.7)	5(8.5)	33(3.3)
교육부 직업적응/교육만 담당, 노동부 직업훈련	17(22.1)	25(14.0)	91(13.2)	8(13.6)	141(14.0)
기타	0(0)	2(1.1)	9(1.3)	2(3.4)	13(1.3)
사례수(Base for %)	77	178	691	59	1,005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기관 간 연계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협력방법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감각장애학교의 경우 각 부처(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통합된 통합고용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59.7%)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직업적응 및 교육만 담당하고,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의 주 역할을 하여야 한다(22.1%)는 반응이 두 번째로 많았다.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의 경우 각 부처의 통합된 통합고용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69.7%)는 반응이 가장 높았으며, 특수학급(61.9%)과 특수교육지원센터(62.7%)도 마찬가지로 통합고용지원팀 구성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각 부처(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통합된 통합고용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을 노동부로 이관(재정경제부의 10개부처, 2006)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통합된 통합고용팀을 구성하여 학교와 관련기관이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 간의 협력 실태를 파악한 후, 이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의 개선방안은 논의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간 협력을 통한 진로·직업교육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진로·직업 수업시간에 관련기관의 다양한 전문 인력 참여 유도

중·고등부에서는 학급담임교사가 진로·직업을 주로 전담하고 있고, 전공과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가면서 진로·직업교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에 가서도 학급담임이 진로·직업을 전담하였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중등교육 이후 관련자는 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교육자, 전환전문가, 직업개발가, 직업재활상담자, 직업직무원, 사례관리자 등(정인숙, 2007)이 고등부의 수업에 참여하여 협동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진로·직업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담임교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진로·직업교사, 상담교사, 보조교사 그리고 직업개발자, 직무지도원, 사회복지사 등 외부 진로·직업교육 관련 전문 인사들이 학교와 현장이 연계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참여하여 학생 개인의 진로와 연계하여 개별화된 진로·직업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 2. 관련기관의 활용 및 협력정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네트워크 조성 및 유대관계 확립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받으며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역의 기관(시설)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가면서 직업관련 기관이나 사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중·고등부과정에서는 협력기관이 거의 장애인복지관에 제한되어 있었다.

장애학생 및 장애성인의 진로 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력은 여러 전문 분야의 역할 이완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를 넘나드는 정보와 기술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초학문적 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정희섭·정인숙외, 2005). 그러므로 여러 다른 기관들이 각자 고유 업무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여 서로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하여야 하며, 조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 산·학·연계 장애학생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취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확립된 네트워크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3. 관련기관을 활용한 실기 위주의 직업 훈련 및 현장중심 교육 증진

실기중심의 직업 훈련은 직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전환을 높

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사업체의 고용을 위한 요구조건이 적절한 수준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학생들이 직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작업경험이 필요하다. Stodden 외(2001)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에 교과수업과 실제 작업 경험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David 외(2006)은 직무수행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과 직무기술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 뿐 아니라, 관련기관에서의 실기위주의 직업훈련 및 현장 중심교육은 점차 강조되고 있고, 특히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와 고용주와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서의 교육과 관련기관에서의 실습 등을 접목하여 실제적인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체제 구축

진로·직업교육에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장애학생의 개개인의 특성과 실무능력, 적응능력에 바탕을 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시기별로 적절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 환경에서 학생의 요구에 걸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한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전환에 관련되는 다양한 기관과 인사들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자체에서의 평가보다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직무지도원, 사례관리자 등이 함께 기능적·상황적 평가와 작업현장 평가를 통해 진로 및 직업의 적성을 찾아내고, 그 적성과 흥미를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졸업 후 성공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 흥미를 찾아낼 수 있는 적절한 평가도구의 선정과 전문가에 의한 평가, 전문가에 의한 평가 후 교육계획 수립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학기 초 종합평가를 통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중학부에서부터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독립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5.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고용팀 구성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은 지역사회의 요구 분석 및 실행 계획의 수립, 교육·훈련·고용기회의 제공, 직원 훈련과 기술적 지원, 관련기관간 협력과 자원의 공유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관련 기관 및 시설 이용의 어려움과 관련기관이나 시설의 이해 및 협조 부족, 관련기관이나 시설

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협력하는 ‘통합고용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고등부나 전공과의 담당교사 개인의 힘으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이루어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현재 상황은 대부분 교사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통합고용팀을 통해 학교교육과 직장적응훈련, 현장실습, 취업, 추수지도 등이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6. 관련기관을 통한 취업현장의 여건 개선

진로·직업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 및 성공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독립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취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취업한 직장에서의 직장유지 기간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오래 안정적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취업현장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은 열약하여, 쉽게 직장을 폐쇄하기도 하고, 업종을 바꾸기도 하고,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취업한 장애인의 근무여건을 개선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조가 요구된다. 장애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실습기간을 두고 현장 중심적인 직업기술 교수가 이루어지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주고, 작업환경이나 여건이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업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이 직장에서 대인관계에 실패하지 않도록 상사 및 동료들이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도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장애인 고용 업체의 관리직 및 직원에 대한 장애이해 프로그램에 관한 연수를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다(이유훈, 김형일, 강병호, 2003).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취업 현장 여건의 개선이 요구되므로, 장애인의 취업 기관에 관한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장애이해 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기관에서의 정기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간의 협력에 있어서 투입요인과 과정요인의 협력 실태를 분석하는데 연구문제를 두었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교사 255명, 특수학급교사 6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59명으로 총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에 있어서 투입요인으로 인적 자원의 협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련기관은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 및 특수학급의 경우는 지역장애인복지관, 감각장애학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관련기관별 협력정도는 전체적으로 지역장애인복지관(29.4%), 장애인고용촉진공단(19.2%), 사업체(17.8%)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에 있어서 과정요인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한 교육내용에 따른 주된 활동은 중학부(85.8%), 고등부(79.9%)는 현장견학이었고, 전공과는 현장실습(91.8%)이었다. 평가에서의 관련기관의 참여도는 대부분 학교자체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위한 요구사항은 외부 직업 관련기관과의 연계 요구가 가장 높았다. 관련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정보부족과 교육과정 운영상 관련기관 및 시설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간 연계를 위한 바람직한 협력 방법에 관해서는 각 부처(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통합된 통합고용지원팀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 2. 제언

연구의 결론을 통하여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내의 수업장면에서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업시간, 전문가들의 구성방안, 다양한 전문가들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련기관의 체계적인 지역 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지역 관련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기관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역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고, 각 기관별 역할분담과 세부적인 협력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가장 바람직한 연계기관을 선정하고 연계기관과의 적절한 평가 시기, 평가 장소,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도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취업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 각 사업체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기본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이러한 기본사항을 문서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 도구를 제작하여야 하며, 이 도구에 의한 기관 평가 실시 방법을 모색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방법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병호, 이윤희, 김형일(2003).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인적자원부(2007). **특수교육실태조사서**. 교육인적자원부.
- 김형일 외 8인(2001). 장애성인의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과정 요인분석을 통한 전환 지원체제 구축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7(2), 309~346.
- 정인숙(2003). **정신지체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인숙(2007).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과 시사점. **특수교육학연구**, 41(4), 173~193.
- 정인숙 외 4인(2007). **특수교육기관 진로·직업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국립특수교육원
- 정희섭·정인숙 외 3인(2005). **특수학교(급) 고등부 졸업생의 진로실태 및 진로 지원체제 구축 방안**. 국립특수교육원
-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서울:저자.
- David, W. T., Nellie, P. A., & Jane, M. E.(2006). *Transition Methods for Youth with Disabilities*. New Jersey Columbus OH :Pearsom Merrill Prentice Hall.
- Levinson, E. M. & McKee, L. M.(1991). The exceptional child grow up : Transitions. In M. Fine(Ed.). *Collaborative involvement of parents*. Brandon, VT : Clinical Psychology Publishing.
- Morningstar, M. E. (1995). Examining the transition planning process : *What are perception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garding their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 life?*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Lawrence.
- Sitlington, P. L., Clark, G. M., Kolstoe, O. P.(2000).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r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US : Allyn & Bacon.
- Stodden, R., Dowrick, P., Stodden, N., & Gilmore, S.(2001). *A review of secondary school factors influencing post-school outcomes for youth with disabilities*.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Postsecondary Education Supports.

## The Study of Cooperation between Special Education Institutes and Related Agency for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In Suk Jeong**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Hyeung-il Kim**

Korea Nazarene University

**Jea Kook Park**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status of cooperation between special education institutes and related agency for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input and process factor. For this, we used a question survey as the general study method. The recipients are 1,005 people in charge of special education schools, special education classes, or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Those are as follows.

First, as an input factors of the cooperation in related agency for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a cooperation of human resource are appeared very dull. especially, in case of the schools for mentally retardation and emotional disturbance, they used mostly The Local Community Welfare Agency for The Disabled, but other schools for sensory impairment used mostly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Second, as a process factor, the major activation according to the curriculum linked related agency are field trip and on-the-job training, the schools conducted the evaluation by themselves. so they are needed linked evaluation methods to the related agencies for establishment of effective evaluation. and as an effective cooperation method for interagency linking, totally, they are needed organizing 'integrated employment team'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each ministry of departments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inistry of Labor).

**Keywords** :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related agency, job education, statue

논문 접수: 2008. 7. 31    심사 시작: 2008. 8. 11    게재 확정: 2008. 12. 22